

현안과제연구  
2014. 11. 15

# 금산 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수행: 유학열·이인배·이영옥

CDI 충남발전연구원

## 금산 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 목 차

I. 농업유산의 이해 .....	1
II.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본 전략 ..	11
1. 신청 시기	
2. 명칭과 대상	
3. 평가기준에 따른 대응 전략	
III.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을 위한 연구 계획 ..	14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3. 연구 기간	
4. 연구 소요 예산	

# I. 농업유산의 이해

## 1. FAO의 GIAHS

### 1) 도입 경위

- FAO에서는 2002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제도를 창설하였다. 농업유산(agricultural heritage)이란 용어는 이때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GIAHS의 개념은 2002년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상회의 행사에서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FAO에 의해 제안되었다.
- GIAHS 제도는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세계적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여기에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생물다양성의 관리와 보존을 증진시킴으로써 인류의 삶과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GIAHS의 정의와 지정 기준

- GIAHS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Remarkable land use systems and landscapes which are rich in globally significant biological diversity evolving from the co-adaptation of a community with its environment and its needs and aspir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정의되었다.
- 이와 같이 정의된 GIAHS는 지역공동체가 그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자연적 환경과 관계를 맺고 적응하면서 형성한 농업과 관련된 유산 중에서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동감이 넘치며 진화하는 농업시스템을 가진 경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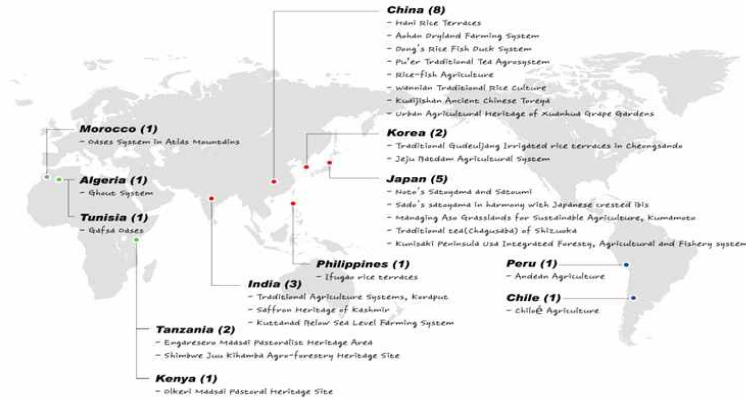
- 이 정의 속에는 인간이 환경의 혜택과 제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응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관과 생물적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농업유산에는 인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얻은 경험과 지식체계가 축적되어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표 1-1] FAO의 세계농업유산 지정기준\*

구분	기준	내용
I. 시스템의 고유특성 (systems criteria)	1. 현저한 특징 (outstanding characteristics)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 식량안전과 생계유지 - 사회조직과 문화 - 지식체계와 및 농가 단위의 기술 -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
	2. 지속성의 역사 (proved history of sustainability)	-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 - 적응적 능력 -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
	3. 세계적 중요성 (global significance)	- 공공성 - 부가가치
II. 정황성 (contextual criteria)	1. 대표성 (representation)	-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 - 전시효과 - 현저한 대표성
	2. 외부의 위협 (external threat)	- 외부적 위협의 존재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policy and development relevance)	- 정책의 적용가능성
III. 프로젝트 수행성 (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	1. 프로젝트 통합성 (project integration)	- 파트너 십
	2. 공동 펀드의 능력 (co-finance potential)	- 공동 펀드 가능성
	3. 프로젝트 접근성 (project approach)	- 국제협약 - 프로그램적 접근 - 생태계적 접근 - 지역사회의 권한 - 분권화

\* 이 기준은 2012년 10월 이전의 FAO 홈페이지에 제시된 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 GIAHS 지정 지역<sup>1)</sup>



출처: 유학영·이영옥(2013),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현황과 특징,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

<b>일본(사도시)</b> 파오기(물) 이용한 저농업농법		<b>일본(노토반도)</b> 사토야마와 사토우미농업 개단식 및 해변의 토지이용농법	
<b>케냐, 탄자니아</b> 마사이족 목축시스템과 고원산대시스템		<b>중국</b> 와니안족 전통 벼농업, 자력고유물종유지 병충해와 척박한 땅에 강한 품종 논둑에 숲의 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존	
<b>중국</b> 허니다람이논 신간지대 토지이용, 효율적 물이용시스템 1만년 이상 역사성, 7만ha 이상의 규모		<b>중국</b> 바-물고기 농업 물고기와의 생리공급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의 감소	
<b>알제리, 튀니지</b> 마그레브 지역의 대추야자 오아시스농업 사막지대의 토지이용 대추야자, 나무, 곡물의 상호작용		<b>필리핀</b> 아푸가오 다람이논 고산지대 대규모 다람이논 생물다양성의 보전	
<b>칠레</b> 칠로에 농업 감자, 밀고, 밀기의 원산지 200여종의 감자농업, 다양한 생물종 서식		<b>페루(쿠스코, 푸노)</b> 안데스산맥 농업 잉카시대 농업유지 재(옥수수, 콩, 감자), 고지대(방목장) 지배	

출처: 윤원근·최석인(2012), 2012 농업전망 '한국 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p.311

1) 2013년 12월말 기준이며 현재 약 50여 곳이 지정됨

## 2. UNESCO의 세계유산제도

- 유네스코 총회는 1972년에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하였다. 현재 세계유산은 크게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복합유산<sup>2)</sup>으로 분류되지만, 이외에 인류의 무형유산(2003), 세계의 기록유산(1997)이 추가되었다.

### 1) 자연유산

-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란 UNESCO의 정의에 의하면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비롯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자연미 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이와 같은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전승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의 기념물,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등을 말한다.
- 자연유산의 정의에서 보면 그 대상은 자연지역이거나 자연유적지이다. 이와 같은 대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며, 또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이 나타날 때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정의에서는 유산의 과학적, 미관적인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유산의 인류에 대한 유익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UNESCO의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에는 특히 '동물 및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FAO에서 정의한 GIAHS의 개념요소 중에 생물다양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FAO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은 자연 상태

2) 복합유산은 자연유산의 등재조건과 문화유산의 등재조건을 동시에 하나씩 만족시키는 유산이다.

로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이 아니라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지이용체계 속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동물 및 생물종의 생식 및 자생지는 자연 상태의 것이라면 FAO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시스템 속에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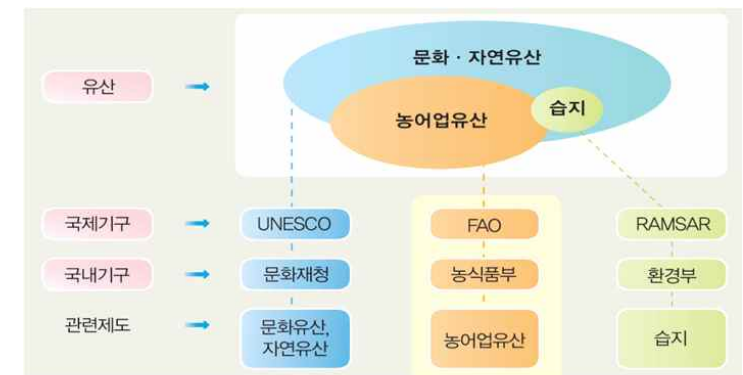
## 2) 문화유산

- Wikipedia(2011)에 의하면 문화유산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의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며 그 발전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예전시대의 문화적 소산 전부를 문화유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련된 유물 및 식량이나 산업제품생산에 관한 유물 또는 민속신앙·윤리·예술·학술·정치 등에 걸친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이 모두 문화유산의 대상이 된다.
- UNESCO는 이상과 같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기념물에는 건축물, 기념적인 의의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건조물군에는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것의 건축성, 균질성, 입지성으로부터 역사적, 미술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적지에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포함된다.<sup>3)</sup> 이상과 같은 UNESCO의 정의에서 보면 문화유산 속에는 인간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3) Wikipedia에 의하면 문화유산의 유형을 식량유산(food heritage), 산업유산, 그리고 전통·관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 둘은 논의로 하면 이 중에서 식량유산은 동식물의 기원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의 분포, 사람이 처음으로 경작하고 동물을 길들였던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식량을 가공하고, 저장하며 소비했던 최초의 장소 등이 포함된다. 장소의 예로는 농장, 제분·정미소, 방앗간, 낙농장, 과수원, 포도밭, 양조장, 식당, 시장, 여관 등을 말한다.

## 3) 복합유산

-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세계유산 중 복합유산은 하나의 공간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부합하는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에는 등재조건이 총 10개 항목<sup>4)</sup>이 있는데, 이 중 1번~6번은 문화유산의 조건이고 7번~10번은 자연유산의 조건이다. 10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세계유산이 되지만 복합유산의 경우는 1번~6번 중 1가지 이상, 그리고 7번~10번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sup>5)</sup>



출처: 박운호(2014), 농업유산의 이해와 지역 활성화, 충남발전연구원 세미나 자료

- 4) (1)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2)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4)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입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5)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입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6)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9) 육상, 담수, 해양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10)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상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http://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world\\_culture\\_02.jsp](http://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world_culture_02.jsp))
- 5) 복합유산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등재된 건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29건 밖에 없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검토하고 있는 유산은 지리산이나 엄전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자료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복합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만으로 등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문화재청의 질의에 대한 응답(2012.7.12)].

#### 4) 문화적 경관

-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대부분 인류가 쌓아온 기념적인 건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유산은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난 자연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세계유산목록이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양극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sup>6)</sup>
- 즉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의 지정이 점(點)적인 보존에 치우쳤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면(面)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며, 종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이를 메우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sup>7)</sup>
- 1992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회의는 결과물로서 'cultural landscapes of universal value'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4년에 문화적 경관의 개념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5년에는 필리핀의 콜디레라(Cordilleras)산맥의 계단식 논이 세계의 문화적 경관으로 처음 등록되었다.<sup>8)</sup>
- 문화적 경관이란 인간의 행위와 자연과의 결합의 소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경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

6) 유네스코는 문화적 경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경관은 문화적 자산이고, 조약 제1조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간의 공동작품>에 상당하는 것이다. 인간사회 또는 인간의 거주지가 자연 환경에 의한 물리적인 제약 가운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내외적 힘에 의해 계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진화를 해왔는지를 예증하는 것이다.'(金田章裕, 문화적 경관, 2012, pp.25)

7) 문화적 경관은 복합유산과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유산이다. 복합유산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 자연 모두를 충족시키는 유산인 반면에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의 한 종류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산을 문화적 경관이라고 한다. 문화경관은 말하자면 유산의 형태를 규명하는 분류이다. 마치 문화유산 내에 고고학적 유적이 있을 수 있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이 있을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선상에서 건축물, 유적, 기념물, 문화적 경관 이와 같이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복합유산일 수도 있다. 즉 문화적 경관은 세계유산의 등재조건 중 문화유산의 조건인 1번~6번 중에서 최소한 하나(특히 4번)만 충족시켜도 등재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적 경관이면서 복합유산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7번~10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경관으로 등재된 것은 아직 없다[문화재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2012.7.12)에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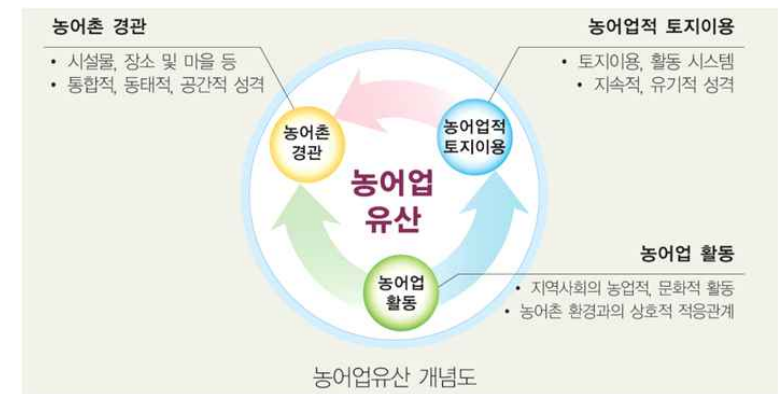
8) 김관기(2005), 문화유산보호에 있어서 문화적 경관의 새로운 전개, 건축역사연구, pp.14~4.  
오만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제도, 국토논단.

의 설계의도에 의하여 창조된 경관으로 이를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고 한다. 둘째는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이 포함된다. 이 영역에 우리가 말하는 농업유산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는 관련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신앙 및 종교, 문학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관이 포함된다.<sup>9)</sup>

### 3. 국가중요농업유산(한국)

####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범위

- 한국의 농업유산이란 '농림어업인<sup>10)</sup>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을 말한다.



출처: 박운호(2014), 농업유산의 이해와 지역 활성화, 충남발전연구원 세미나 자료

9) 오만근, 위의 글, pp.98~99.

10) '농림어업인'의 용어 대신 '농어촌주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농업유산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니 만큼 농업유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한 '농림어업인'의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은 농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이에 의해서 형성된 하드웨어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가 복합되어 구성되었다.
- 다시 말해서 농어업유산은 무형적 요소로서의 시스템과 유형적 요소로서의 경관의 복합체로 정의되므로 이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별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체로 지정한다. 이러한 점이 무형요소와 유형요소를 별개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나 농촌유산의 개념과 다르다.
- 무형적인 소프트웨어적 요소로는 토지이용시스템, 수자원이용시스템, 생태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농어업 관련 지식 및 기술체계 등과 지역공동체의 농어업 생활과 관련된 풍습, 문화 등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 유형적 요소의 경관은 크게 작물생산지역과 인근주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작물생산지역은 다시 농업 관련, 축산 관련, 어업 관련, 임업 관련 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2]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시스템</li> <li>- 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li> <li>-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 체계</li> <li>- 축제, 풍습 등 문화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임업 관련 경관</li> <li>- 축산 관련 경관</li> <li>- 어업 관련 경관</li> <li>- 수자원 관련 경관</li> </ul>

- 농업의 경우는 논, 밭 등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논에는 다랑이논, 구들장 논, 각종 생물다양성의 풍부한 친환경 논 등이 포함된다. 논농사와 관련된 시설물인 둠벙, 어도, 수로, 저수지, 저장시설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되며, 밭에는 친환경 밭, 계단식 밭, 특종작물재배 밭과 이와 관련된 시설물 예컨대 돌담, 담배 재배지와 담배 건조장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 축산의 경우는 방목지, 채초지, 토종가축 사육지 등이 포함되며, 임업에는 생산림, 방풍림, 마을림 등이 포함된다.
- 이상의 서로 다른 요소들은 각각이 농어업유산의 구성요소로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요소들이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이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농어업유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다랑이논과 염전, 갯벌, 마을로 구성된 경관은 하나의 농어업유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저수지는 이와 연계된 수원지, 친환경 논, 마을 등을 함께 묶어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

[표 1-3] 농어업유산의 지정대상 분류(예시)

대상의 분류	내 용
농업	논 -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다랑이논, 구들장논, 친환경논, 둠벙 논 등)
	밭 - 전통적인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계단식 밭, 담배건조장 등) - 특성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방법과 관련(작목별 시목지 등)
축산	- 전통적 축산활동 및 기술과 관련(방목지, 채초지 등)
임업	- 전통적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생산림 등)
어업	- 전통적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등), 어항

##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표 1-4]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1. 유산의 가치성	1-1 현저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의 전통적 농림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li> <li>○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li> <li>- 토지 및 수자원이용</li> <li>-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li> <li>- 공동체의 농림어업 지식체계와 기술</li> <li>-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조직*</li> </ul> </li> </ul>
	1-2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로부터 농어촌주민의 농림어업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li> <li>○ 미래의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li> </ul>
	1-3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li> <li>- 농업, 임업, 어업, 축산 등의 분야별 대표성</li> </ul> </li> </ul>
2. 파트 너쉽	2-1 협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li> </ul>
	2-2 주민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이 있을 것</li> </ul>
3. 효과성	3-1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li> </ul>
	3-2 주민의 소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ul>
	3-3 생물다양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전통적인 농업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친환경농업의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을 것</li> </ul>

\* 2012.10월 이후 FAO에서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한국도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 II.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본 전략

### 1. 신청 시기

-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을 살펴보면 1년에 1~2번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결정해 왔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신청 횟수와 지정 규모가 달라진다.
- 금산인삼의 경우 준비 기간이 짧아 신청서류(증빙 문헌, 기록 등)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2014년 1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 이유는 일단 신청하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으로부터 지정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으며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경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전의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 자리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통상적으로 현지실사를 받아야하는 후보유산 선정과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진행된다.
- 또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2015년 중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받아야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필수조건이며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다.

### 2. 명칭과 대상

- 명칭: 금산 전통적 인삼농업
- 대상: 인삼밭+인삼농업(농법)+인삼 주재배지+인삼농가+인삼 문화 등

- 범위: 금산군 내 인삼 주재배단지(마을)이면서 인삼재배지의 경관이 좋은 곳

### 3.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응 전략

#### 1) 역사성

- 금산 인삼이 재배되어 온지 100년 이상이 되었다는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 제시(문헌, 기록, 사진, 증언 등)
- 금산 인삼 시배지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3대 이상(100년 이상) 인삼을 재배해온 농가 파악: 객관적 증거 제시
- 향후 금산 인삼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계승해야하는 이유(지역농업의 근간, 한국 고유의 농산업, 세계적인 브랜드, 전통적 인삼농법의 계승, 인삼과 관련된 문화·풍습 등의 계승)명시
- 금산 인삼의 향후 발전 가능성(발전방안, 발전계획) 제시

#### 2) 대표성

- 국가적으로 대표성이 있다는 사실 제시: 인삼의 시배지(전국 유일), 재배면적(전국비율), 생산량(전국비율), 유통량(전국비율), 금산 농업에서 인삼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금산지역의 특성화된 작물이라는 점 강조)
- 금산 인삼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설문조사 등) 결과 제시
- 금산지역만의 토종 인삼 종자 유무 확인
- 금산 인삼 재배 경관(4계절 변화)의 특징 제시

#### 3) 특징

- 전통적 농업시스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산 인삼의 농법(기술, 농자재, 토양관리 등) 제시
- 관련 문헌, 기록, 사진, 증언(인삼농가)

- 전통적 인삼농가(마을)의 생활 시스템: 인삼재배와 관련된 생활양식, 기원, 풍습
-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금산 인삼의 역할(위치) 기술

#### 4) 협력도

- 금산군(금산군수)의 추진 의지(군수님 등 행정측면에서의 의지) 강조
- 인삼농가(조직)의 추진 의지
- 지정 추진을 위해 협력 가능한 주체(단체,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 인삼재배농가단체, 축제추진위원회, 농협, 중부대, 인삼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등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 5) 참여도

- 대상 지역의 농가(주민)들의 호응
- 주민설명회 개최(향후 계획 포함),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지 견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 6) 지역브랜드 활성화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금산 인삼의 브랜드 인식 제고 가능성
- 지정된 후 금산 인삼 브랜드 홍보 방안, 계획
- 기존의 인삼축제, 엑스포 등의 지속적 활성화 계획 제시
- 인삼을 주제로 한 새로운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계획 제시
- 2017년 인삼엑스포 계획안 제시
- 금산인삼농업의 활성화(발전)을 위한 지원책(정책, 사업)

### III.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을 위한 연구추진 계획

#### 1. 연구의 목적

-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정리
- 금산 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 확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따른 기준 항목별 조사·연구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따른 기준 항목별 조사·연구
- 농업유산지정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세미나, 국내외 현지시찰 등 실시

####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 지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사실적 자료 수집과 분석
  -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분석
  -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조치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 조사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학술행사 실시
  -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2회)
  -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 발굴과 인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1회)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지역 벤치마킹(2회, 청산도·제주도)



## 2)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 지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사실적 자료 수집과 분석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자료 보완(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으로 보완)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 조사(일본, 중국)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주관 및 참가
  - 금산 인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논의를 위한 국내외 세미나 개최(국내세미나 1회, 국제세미나 1회)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 한·중·일 농업유산 연구협의회(ERAHS) 국제컨퍼런스 참가: 2회  
※ 2015년 일본, 2016년 한국
  - 세계중요농업유산 국내외 전문가·FAO 관계자와의 교류 활동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지원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까지의 로드맵 제시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영문, 국문)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발표 자료 작성(영문, 국문)

## 3. 연구 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12월(※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시점에 따라 유동적)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1년 1~2회 지정 심위원회의 개최·지정
  - 금산 인삼의 경우 2015년 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목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2016년부터 3년 간 15억원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년마다 지정 심의(2015년, 2017년)
- 금산 인삼의 경우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을 목표

## 4. 연구 소요 예산: 200,000천원

구분	항목	소요예산 (천원)
합 계		200,000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 문헌 자료 수집·분석 - 현지조사·인터뷰 - 관련 전문가 협력 연구	60,000
	2) 주민설명회 개최(2회) - 금산 군민·인삼 재배농업인 대상 주민설명회	5,000
	3) 학술세미나 개최(1회)	3,000
	4)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지역 벤치마킹(2회: 청산도, 제주도)	2,000
	5) 기타 제경비	5,000
	소 계	75,000
세계중요 농업유산 지정	1)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 문헌 자료 수집·분석(국가중요농업유산 자료 보완) - 현지조사·인터뷰 -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 연구	60,000
	2) 국내 학술세미나 개최(1회)	3,000
	3)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1회)	15,000
	4) 한중일 농업유산 협의회(ERAHS) 국제 컨퍼런스 참가(일본)	6,000
	5) 세계중요농업유산 국내외 전문가·FAO 관련자와의 교류활동	10,000
	6)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3명)	12,000
	7)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 현지 조사(일본, 2명)	7,000
	8)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영문, 국문)	5,000
	9)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발표 자료 작성(영문, 국문)	2,000
	10) 기타 제경비	5,000
	소 계	125,000